
환상의 미래: 라틴아메리카의 중산층

세실리아 구에메스 / 루돌포 파라미오

마드리드 아우토노마 대학교 정치학 교수 / 스페인 고등연구원 교수

원제와 출처: Cecilia Güemes y Ludolfo Raramio, “El porvenir de una ilusión: clases medias en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o. 285, enero-febrero de 2020, pp. 47–59.

핵심어: 중산층, 민주주의, 불평등, 라틴아메리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라틴아메리카는 중산층의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꿈을 꾸었다. 라틴아메리카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모두 잘못되었지만 집단적 상상 속에서는 존속하는 형용사들이 빈곤하며 후진적이고 저개발된 제3세계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같았다. 경제 성장과 사회 정책은 소비의 증가, 사업 기회, 기업이 정신과 같은 경제적 희망과 빈곤 극복 및 불평등 감소와 같은 사회적 희망, 민주주의의 심화 및 공고화 그리고 새로운 권리에 대한 인정과 같은 정치적 희망 및 새로운 정체성의 가시화와 같은 문화적 희망의 씨를 뿌렸다.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생각은 보상과 정복과 같은 것으로 작동하였으며

빈곤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역사적인 정치, 사회적 도전을 극복하였다. 또한 집단적 상상 속에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향상에 대한 열망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중산층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며 미래를 신뢰하고 건설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중산층은 생산 구조 내에서 상이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포함하는 이질적인 사회 집단으로 묘사된다.¹⁾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체성, 문화적 특성 그리고, 혹은 특정 수준의 평균 소득에 의해 통합되는 것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신중산층이라는 범주는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 덕분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사회적 상승 이동을 경험하였지만 상황이 비일관적이고 불안정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중산층 개념에 대한 기존의 모호한 의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신중산층은 가계 총 소득이 빈곤층보다는 높지만 (이 가구 구성원들은 자동차나 새 가전제품을 살 수 있거나 휴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계약을 맺지 않는 직업, 즉 비정규직에 주로 종사하면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축을 할 수 있을 경우라도 저축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가구를 의미한다.²⁾

각국 정부는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사회 구조를 변모시키지는 않는다는

1)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중산층이 생산 수단으로부터 제외되었기에 이들을 노동자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자본의 세계적 기능에 참여하기에 자본가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계급 관계에 있어 모순적 입장을 중산층의 특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Val Burris, “La síntesis neomarxista de Marx y Weber sobre las clases”, en *Zona Abierta* Núm 59–60; Eric Olin Wright, “Reflexionando, una vez más, sobre el concepto de estructura de clases”, en *Zona Abierta*, Núm 59–60, 1992.

2) L. Paramio: presentación del seminario internacional “Clases medias y agenda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Centro de Ciencias Sociales y Humanas–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ón Científica, Madrid, 14/2/2013; y L. Paramio: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Fundación Pablo Iglesias, Madrid, 2010.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각종 지표들을 손에 들고 미래의 복지를 예측하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2009년에는 10명 중 3명이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간주하였다.³⁾ 유엔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조사에서는 1996년 26%였던 중산층 가구가 2006년에는 32.5%로 증가하였다.⁴⁾ 그리고 라티노바로메트로 (Latinobarómetro)에 의하면 2011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70%의 시민들이 자신을 중산층 혹은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중산층의 현재적 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중산층으로 평가받기 위한 추동력이 자신을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다고 느낄 필요성과 문화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분 기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주체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느끼게끔 이끄는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 표상, 원인 혹은 동기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중산층이라는 이 범주 속에 스스로를 정의내리도록 하는 것일까?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가 매우 흥미롭다.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3) 세계은행 조사는 하루에 10달러에서 50달러를 소비한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간주하였다. Francisco H. G. Ferreira, Julian Messina, Jamele Rigolini, Luis-Felipe Lopez-Calva, María Ana Lugo y Renos Vakis: *La movilidad económica y el crecimiento de la clase media en América Latina*, Banco Mundial, Washington, DC, 2013.

4) CEPAL 조사는 소득이 1인당 도시 빈곤선의 4배를 초과하며 95분위 값 미만 가구를 중산층으로 간주하였다. CEPAL의 자료는 조사 대상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등 10개국의 평균을 반영하고 있다. Rolando Franco y Martín Hopenhayn: "Las clases medias en América Latina: historias cruzadas y miradas diversas" en R. Franco, M. Hopenhayn y Arturo León (coords.): *Las clases medias en América Latina: retrospectiva y nuevas tendencias*, CEPAL-SEGI/ Siglo Veintiuno, Ciudad de México, 2010.

인식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자신이 중하층이라는 인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그래프를 참조). 그래프에 나타난 지표들은 중산층에서 중하층으로의 이동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 말 아르헨티나에서는 단계적인 사회적 신분 하락, 중산층의 분열과 빈곤화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중산층의 “신빈곤층”으로의 변동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중산층 내에서의 이중화 혹은 중간층간의 단절은 세계화의 승자와 패자 및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⁵⁾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글로벌 스토리가 지닌 매력의 상실된 것 이외에도 자기 인식의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열쇠는 “나는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직업을 찾을

[표-1] 라틴아메리카의 중산층: 객관적 지표(2007~2017)와 주관적 지표(2011~2018)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년도	중산층	취약 중산층	년도	중산층	하위 중산층
2007	27.44	35.69	2007	37.2	30.4
2017	38.43	36.3	2017	36.8	29.6
변동 2017/2007	10.99	0.61	변동 2017/2007	-0.40	-0.80

주: 객관적 데이터는 세계은행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구매력 평가 기준 13~70달러(2011) 사이의 중산층과 5.5~13달러 사이의 취약한 중산층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 데이터는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의 평균을 보여준다. 주관적 데이터는 Latinobarómetro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자료는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상류층, 중상층, 중산층, 중하층, 하층 계급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표에 반영된 데이터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세계은행 Equity Lab과 Latinobarómetro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5) Alberto Minujin y Gabriel Kessler: La nueva pobreza en la Argentina, Planeta, Buenos Aires, 1995; Maristella Svampa: “Clases medias, cuestión social y nuevos marcos de sociabilidad” en Punto de Vista Núm 67, 2000; Manuel Mora y Araujo: “La estructura social de la Argentina: evidencias y conjeturas acerca de la estratificación actual”, *Serie Políticas Sociales* Núm 59, CEPAL/ Naciones Unidas, Santiago de Chile, 2002.

수 없어”와 같은 사회적 기대의 좌절, “민주주의는 이후에 이룩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약속했는데”와 같은 정치적 환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⁶⁾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중산층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체성의 기준을 활성화하고 “프티 부르주와, 순응주의자, 개인주의자, 피상적”과 같은 전통적으로 중산층을 규정해왔던 “심리학” 혹은 역사적 “원형”과 결부된 부정적인 표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할 수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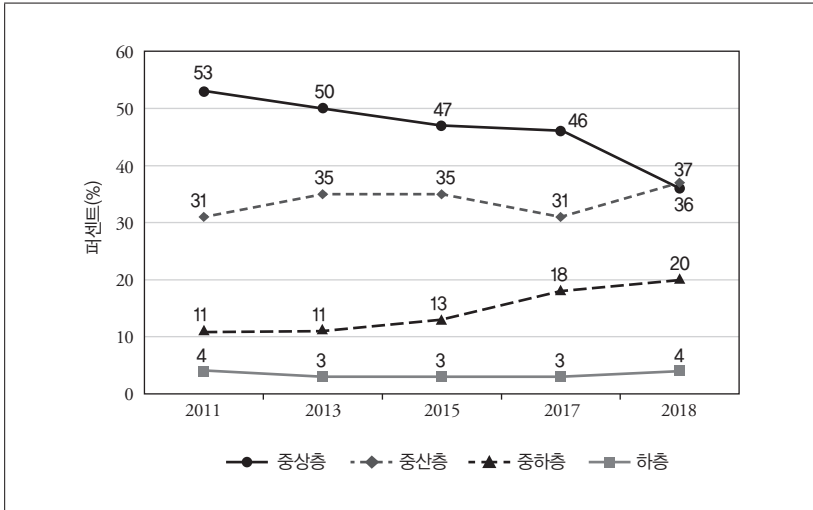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중산층의 형태와 태도, 행동 그리고 사회적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계급의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다양하다. 첫째로 라틴아메리카의 신중산층을 문화적이며 정체성적 차원에서 전통적 중산층과 구분하면서 신중산층의 특성들을 부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신중산층이 자신들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느끼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설명할 것이다. 셋째로 제도적 비효율성, 낮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 부패와 사회적 불안 등에 대한 신중산층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신중산층의 인식과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라틴아메리카 신중산층의 실용적이며 또한 동시에 상귀를 벗어난 특이한 정치적 행동을 설명할 것이다.⁸⁾

6) Liliana de Riz: “El apetito de progreso de las clases medias: un tiempo de reformas para Argentina” en L. Paramio y C. Güemes: *Las nuevas clases medias: ascenso e incertidumbre*, CEPIC, Madrid, 2017.

7) Sergio Visacovsky y Enrique Garguin (eds.): *Moralidades, economías e identidades de clase media. Estudios históricos y etnográficos, Antropofagia*, Buenos Aires, 2009.

8) C. Güemes: “Aurea mediocritas: crecimiento, características y papel de las nuevas clases medias en Latinoamérica” en L. Paramio y C. Güemes: *Las nuevas clases medias latinoamericanas: ascenso e incertidumbre*, cit.

〈그림 1〉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소속 계급에 대한 자기 정의의 변화 (2011~2018)⁹⁾



출처: Latinobarómetro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신중산층: 차이의 게임

중산층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신중산층 혹은 “신흥” 중산층을 전통적인 중산층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신중산층을 “취약한” 계층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사회학에서는 “차별화된 중산층”의 개념으로 소개하고

9) Latinobarómetro에서 실시했던 조사의 해당 문제에 대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가끔씩 자신이 어떤 사회 계급에 속해있는지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사회 계급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서 해당계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상류층, 중상층, 중산층, 중하층, 하층 등 5개를 제시하였다. 위 그림에서는 상류층이 제외되었는데 자신을 상류층에 속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의 가치가 0 이하였기 때문이다.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계층 간에는 오직 양적 차이 혹은 소비, 수입, 저축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는지 정체성, 선호, 정치적 행동과 같은 질적 차이만 존재하는지 자문하도록 한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중산층이 기존의 중산층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다르고 상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할 것이다. 신중산층은 기존의 중산층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며 의견을 개진한다. 하지만 기존의 중산층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다 취약하며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데 보다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행동은 보다 예측하기 어렵다.

문화적, 구조적 차이

신중산층과 전통적 중산층 간의 차이점들부터 검토해보자. 신중산층은 전통적 중산층과는 다른 문화적, 정체성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신중산층 역시 계급 상승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 중산층과는 달리 신중산층은 상류층의 문화적 규범에 대한 동조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지평 속에서 전통적 중산층이 가졌던 계몽적 현대성이라는 특징적 소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신중산층의 소비는 기술, 사교육, 의류 혹은 특정 브랜드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융합하는 상징 자본들의 조합으로 입증된다. 신중산층은 여행에 지출을 하거나 고품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전통적 중산층과는 다른 부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 신중산층은 자신의 경제적 부를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열고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며, 컴퓨터, 휴대전화, 텔레비전, 오디오, 게임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보여준다. 또한 문화적인 것인 전문적인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과 능력으로써의 지식으로

대체된다.¹⁰⁾

“구”중산층이 도시에 거주하는 서구화 된 화이트 컬러, 특히 공무원과 같은 비육체 노동자들로 구성되고, 이들은 주로 상류층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전통적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반면 “신”중산층은 블루 컬러, 즉 육체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 외곽 혹은 새로 개발된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문화적, 인종적 성향이 배합된 서구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신중산층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하였기에 정부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신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로 보이기보다는 “주인”처럼 보인다. 동시에 이들은 지인과 이웃들 간의 물물교환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볼리비아의 신중산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신중산층의 66.3%가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반면 17.2%만이 정규직, 혹은 높은 급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인종적으로 살펴보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 중 78.3%가 메스티소로 추정되며 13.2%가 자신을 원주민으로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단주의적 측면이 신중산층을 개인주의적 측면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던 전통적 중산층과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¹¹⁾

10) Ana Wortman: “Las clases medias argentinas, 1960~2008” en R. Franco, M. Hopenhayn y A. Leon (coords.): ob. cit.

11) Roberto Laserna: “Clases medias en la Bolivia urbana”, en Daniel Moreno et al.: *Chichay limonada. Las clases medias en Bolivia*, CERES/ Plural, La Paz, 2018.

폰초(Poncho)¹²⁾를 걸친 남성들과 포예라(Pollera)¹³⁾를 입는 여성들 그리고 위팔라(Wiphala)를 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와 기관들을 가득 메우고 있다. 볼리비아, 특히 엘알토 시에서는 전통적인 도상학과 색상 그리고 디자인이 결합된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건축물인 출렛¹⁴⁾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안데스 지역의 신중산층, 환언하면 메스티소 혹은 원주민들 중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프리부르주아를 특징짓는 스타일과 코드의 융합을 가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¹⁵⁾ 그리고 이것은 볼리비아 신중산층이 자신들의 음악적 기준, 특수한 패션과 공존의 형식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은 글로벌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패션과 행동의 패턴을 따른다. 또한 동시에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보다 집단주의적인 전통과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에 조합시킨다.

서로 상충되는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발산적’ 중산층의 범주에는 ‘거부된’ 도시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포함된다. 도시 이주민들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였을 때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전통적인 중산층과 정부로부터 경멸을 받았다고 느꼈으며 도시 주변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메스티소 시민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는 도시 이주민들의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의 영향과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는 현대성의 영향이라는 두 영향 아래에서

12) 남미 안데스 산맥 인근 지역 원주민들의 전통 의상으로 체온 유지를 위해 입는 외투의 일종. 모직으로 만든 큰 천 가운데 구멍을 내고 이곳으로 머리를 넣어 입는다(역주).

13) 안데스 산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메스티소 및 원주민 여성들이 즐겨 입는 주름치마로 폰초와 마찬가지로 주로 모직으로 만든다(역주).

14) 볼리비아에서 원주민이나 메스티소를 지칭하는 용어인 cholo와 주택을 의미하는 chalet의 합성어로 3~7층 높이의 주상 복합건물을 의미한다(역주).

15) Maria Teresa Zegada: “Clases medias emergentes”, en D. Moreno et al.: ob. cit.

교육을 받았다.¹⁶⁾

브라질에서 발표한 연구처럼 “C 계급”(capas medias emergentes 신중산층)은 낙태, 이혼 혹은 동성애와 같은 후기 유물론적 의제의 많은 주제에 있어서는 보다 보수적일 수 있다.¹⁷⁾ 즉 사회적 인식 측면에 있어서 신중산층은 놀라울 정도로 전통적 중산층과 매우 유사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전통적 중산층과 구별되는 신중산층의 두 번째 특징이자 차별적 특성은 이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신중산층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시켰지만 저축을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축 능력은 낮으며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매우 상대적이다. 신중산층의 삶에 대한 만족은 아슬아슬한 외출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군 모든 성과들이 어느 한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은 구조적, 결합적 요인의 상호 관계의 결과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첫 10년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경제 성장이 신중산층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문맥이며 이 새로운 계층의 출현은 상품의 국제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 신중산층의 생산 모델은 여전히 경쟁력이 낮으며 이윤은 1차 상품의 수출 전략을 통해 창출된다. 신중산층은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고 적절한 가격으로 팔리는 천연자원 생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중심체로써, 그리고 키토와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신중산층의 핵심으로써 채굴 우선주의 모델은 “안락한 생활”을 자신들의 생

16) Rolando Arellano Cueva: “Valores e ideología: el comportamiento político y económico de las nuevas clases medias en América Latina”, en Alicia Barcena y Narcís Serra (eds.): *Clases medias y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Naciones Unidas, Santiago de Chile, 2010.

17) María Herminia Tavares de Almeida y Emmanoel Nuñez de Oliveira: “Nuevas capas medias y política en Brasil”, en L. Paramio: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cit.

산 모델에 통합시키려는 열망을 지닌 다문화사회에서는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¹⁸⁾

경제 성장은 실업률을 낮춘다. 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비공식성은 지속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유지한다.¹⁹⁾ 신중산층을 구성하는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에 의존하는 자영업자 혹은 불안정한 기업가로서 육체노동에 기반 한 직군에서 근무하거나 계약을 통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노동 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급료를 지급받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검은 돈”으로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를 못한다. 이들의 1인당 소득은 비록 빈곤선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일당 10달러를 밑돈다.²⁰⁾

라틴아메리카의 신중산층은 자신들의 복지를 국가의 사회 정책 덕분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확보하였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진보 정권들이 추진한 조건부 사회적 지원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이 빈곤을 탈출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²¹⁾ 이와 같은 재분배 사회정책과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직접 경험한 경제성장은 사회적 기대감의 충위를 높였고 많이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8) Jorge Resina: “Clases medias en Ecuador: Entre la ilusión del Buen Vivir y el mito del desarrollismo”, en L. Paramio y C. Güemes: *Las nuevas clases medias: ascenso e incertidumbre*, cit.

19) OCDE: *Latin American Economic Outlook 2011: How Middle-Class Is Latin America?*, OECD Publishing, París, 2010.

20) R. Franco y M. Hopenhayn: ob. cit.; Glenita Amoranto, Natalie Chun y Anil Deolalikar: “Who are the Middle Class and What Values do they Hold? Evidence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orking Paper No. 229,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2010.

21) Miguel Székely Pardo: “Transferencias condicionadas y cohesión social en América Latina”, en Guillermo Fernández del Soto y Pedro Pérez Herreros (coords.): *América Latina: sociedad, economía y seguridad en un mundo global*, IELAT / CAF / Marcial Pons, Madrid, 2013.

현 단계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타겟형 사회정책으로부터 보편적 사회정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빈곤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로부터 빈곤 가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지원이라도 없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도달한 신중산층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고 공고화할 수도 없을 것이다.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만 재분배 공공정책을 찬성하는 사회적 연합체의 창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타겟형 사회정책을 유지하거나 보편적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경우 지속가능성의 측면에 있어 여러 딜레마들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회정책 프로그램들은 국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금 징수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퇴행적이며 또한 간접 소비세를 통해 중산층과 하층 계급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재분배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에 대한 직접세가 더 필요할 것이다.²³⁾

사회적 인식의 유사성: 불신, 절망 그리고 일반화된 분노

생산구조와 재정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변화, 그리고 선거 때마다 바뀌지 않는 국가 정책의 심대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2) L. Paramio: "Conclusiones", en L. Paramio y C. Güemes: *Las nuevas clases medias latinoamericanas: ascenso e incertidumbre*, cit.

23)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14*, Naciones Unidas, Santiago de Chile, 2014.

취약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회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허약함과 빈약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환원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느낀다는 것은 가족 혹은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일련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신중산층은 전통적인 중산층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이 두 집단 모두 공공 서비스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언제나 50%를 밑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자신을 중하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단지 52%에 불과했으며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45%,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서는 45%,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32%, 사법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직 29%만이 만족하였다.²⁴⁾ 국가 및 공공 기관에 대한 불신은 전통적 중산층과 신중산층 간에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지만 자신을 중하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선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2011년에 발표된 라티노바로메트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65%가 의회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고 있지 않거나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을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8%에 달했다. 이런 경향은 정당 (각각 76%와 78%) 혹은 법원 (각각 43%와 68%) 등 다른 기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신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에서도 전통적 중산층과 신중산층 공히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64%가 치안 불안이

24) María Esther del Campo, C. Güemes y L. Paramio: "'I Can't Get No Satisfaction', Servicios públicos, democracia y clases medias en America Latina", en *América Latina Hoy* vol. 77, 2017.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을 중하층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85%까지 그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 사회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전통적 중산층과 신중산층의 태도는 그 격차가 그리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54%가 국가 기관들이 지난 2년간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거의 진전이 없거나 아예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을 중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39%가 부패 문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전통적 중산층과 신중산층 모두 공공 기관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반화되어버린 사회적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겪는 문제들과 구체적 요구사항들에 대응하는 정부의 효율성과 능력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 공공교육의 낮은 질, 교통 혼잡, 외출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집안 내에서도 느끼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해 있는 상태다. 삶의 조건 자체는 향상되었지만 사회는 잘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사실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신중산층이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항의운동이나 시위에 참가한 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라틴아메리카 신중산층의 시위는 그들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주장 (자신들의 지위가 공고화되기를 원하는 신중산층의 의의와 의미에 대한 투쟁) 및 정부 시스템의 개방에 대한 요구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부를 향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 및 정부의 역할, 효율성 및 대응 능력에 대한 판단)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라틴아메리

카의 신중산층을 공공 기관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이 기관들에게 도전하는 비판적 시민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느끼다는 사실이 곧 이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끔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중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위에 참여한다. 말하자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보다 시위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만일 이들에게 교육을 접할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자체와 그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하길 추구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거와 같은 공식적인 정치 채널에도 참여하고 노동 조합을 신뢰하고 있듯이 정부와 기관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²⁵⁾

네 번째로 우리는 신중산층의 정치적 행동 양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신중산층은 자신들이 중산층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기여하였거나 혹은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정당이나 정부와 어느 정도까지 연계가 되어 있을까? 필자들은 라틴아메리카 신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은 예측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좌파를 지지할 수도 있고 우파를 지지할 수도 있다. 이들은 또한 민주주의가 정부 형태 중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동성 간 결혼이나 낙태와 같이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25) John A. Booth y Mitchell A. Seligson: *The Legitimacy Puzzle in Latin America: Political Support and Democracy in Eight Nations*, Cambridge up, Nueva York, 2009; C. Güemes y L.Paramio: "Knockin' on Heaven's Door?" Desempeno de las democracias, protesta social y clase medias en América Latina", en *El impacto electoral de las clases medias emergentes en América Latina*, Centro de Estudios Politicos y Constitucionales, Madrid, 2015; Jaime Fierro: "Clase media y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en *Perfiles Latinoamericanos*, vol. 23, Núm 46, 2015.

반대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알버트 허쉬먼과 마이클 로스차일드가 제시한 터널 효과²⁶⁾ 및 중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의 좌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의 단계 과정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을 수 있다. 성장의 첫 번째 단계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남겨진 이들이 갖게 되는 좌절감은 즉시 표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래의 언젠가는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 그들은 여전히 만족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장의 두 번째 단계에서 신분 상승이 좌절된 이들은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서 기존 질서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 “질서의 적”으로 변하게 된다. 시간의 경과가 이 문제의 핵심적 요소이며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킨다.

인플레이션의 압박 혹은 경제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거나 소비자, 저축의 주체, 연금수령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혹은 치안 및 대중교통과 같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정책이 구체화 되지 않는다면 신중산층의 최대 신용가용성이나 소비 보조금은 불충분해질 것이다.

26) A. Hirschmann y M. Rothschild: “The Changing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e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7, No. 4, 1973. 터널 효과는 한 개인이 경제성장의 맥락 속에서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하여 경험하는 감정을 말한다.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는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개인은 자신이 마치 터널에 갇혀 있고 자기 옆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차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목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상황 속에서 한 개별 주체는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이 터널을 빠져 나갈 차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에 타인의 성장에 대해 기뻐하며 이 순간적 만족은 질투를 잠재운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후 타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갔는데 자신만 나아가지 못하였다면 이 개별 주체는 더욱 악화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한 순간 동안에는 행복감을 느꼈지만 현재는 자신의 위치가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의 상대적 위치는 악화되었고 그는 희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질서의 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릴리아나 데 리스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신중산층은 실용주의적이며 비록 정당 가입은 하지 않지만 탈이념화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신이 어느 특정 정당에 가입해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한다.²⁷⁾ 그녀에 따르면 신중산층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류는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망하는 이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미 성취한 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들이다. 첫 번째 부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²⁸⁾에게 투표를 하는 반면 두 번째 부류는 키르츠네르주의²⁹⁾를 지지한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강조, 사전 정의된 이데올로기적 대응이 없는 정부의 유연한 아젠다, 소셜 미디어의 혁신적 사용으로 인해 공화주의 제안당(PRO)은 2015년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2019년 대선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데 리스의 가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산층은 그들의 관점과 정치적 선호를 바꾸었고 정권교체에 대한 지지와 페론주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자신들의 저항

27) L. de Riz: ob. cit.

28) 1959년생으로 아르헨티나의 기업인이자 정치인.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을 역임하였다. 2005년에 중도 우파 정당인 공화주의 제안당(Propuesta Republicana, PRO) 창당을 주도하였고 이후 2015년에 이 당의 대선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19년까지 집권하였다. 그의 정치철학은 기본적으로 온건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재임 중이던 2018년 심각한 재정 위기가 발생하여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고 2019년 대선에서 패하였다(역주).

29) 아르헨티나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던 네스토르 카를로스 키르츠네르(Néstor Carlos Kirchner, 1950년 2월~2010년 10월)의 정치사상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다. 키르츠네르는 후안 페론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대학생 시절부터 페론주의를 추종하는 학생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후안 페론이 창당한 정의당 소속이었으며 좌파에서 우파까지를 포괄하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당 내에서 자신을 스스로 페론주의자라고 공표할 만큼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집권 기간 중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대통령 퇴임 후에는 정의당 당대표와 남미 국가연합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역주).

방법을 추구하였다.

브라질에서 중산층은 단 한 번도 통일된 사회, 정치 세력으로 출현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와 동시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를 옹호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넘어 이들은 제도 정치와 그 규칙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 시위 참여자들 및 조직화된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불신과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중산층은 기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중심적 위치, 즉 온건한 정치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수적이다. 이것은 볼리비아 사회에서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특권 계층과 동일한 형태의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⁰⁾

결론

특정 문화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았고 그 문화의 기원과 진화의 궤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가끔씩 자신의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의 미래는 어떤 운명이 될지,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는 변화는 왜 발생하게 될 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린다.³¹⁾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적 환상의 기원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그의 작업을 위 문장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환상이 오류도 아니며 거

30) M. H. Tavares de Almeida: "Capas medias, protesta y agenda publica", en L. Paramio y C. Güemes: "*Las nuevas clases medias latinoamericanas: ascenso e incertidumbre*", cit.

31) Sigmund Freud: *El porvenir de una ilusión* [1927], Biblioteca virtual Omegalfa, 2016.

짓이나 실현 불가능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환상은 현실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역사적 기억을 지니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충동에서 출발하여 과거와 미래의 총체적 행위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중산층이란 그 내부에 심대한 이질성을 감추고 있는 통계적 환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복지에 대한 욕구로부터 출발하여 빈곤의 폐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환상은 비록 성별 간의 차이, 민족별 차이 혹은 영토별 차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담론적 구조를 파생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민중 의식의 확립을 저해하고 투쟁을 해체한다. 정부는 통계자료의 지표가 중산층의 증가를 반영할 때 기뻐하고 시민들은 중산층의 특징들 중 약간의 특징만 자신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정부와 시민들 양자 모두 환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그 가 음식과 주택과 같은 어떤 기초적 필수 사항들에 대해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정하며 휴대 전화와 같이 자신을 세계와 연결시키는 소비 품목 및 보다 짧은 시간에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산층에 속한다는 것은 빈곤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며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에 대한 의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을 꿈꾸고 자녀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불평등이 더 이상 대물림될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한다는 것을 상정한다. 언제나 사회적 외부에 머물고 있던 빈곤층과 소외계층은 자기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순간부터 현재와 미래의 한 부분이 된다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 모든 기대들은 세계 경제의 변화나 정부 정책의 선회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환상은 좌절과 분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은 환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 능력을 재분배하고 기회와 소득 그리고 부를 더 잘 분배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가리키는 것 같다. 이것은 환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을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뿐 아니라 불평등 및 불안정한 사회적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점증하는 취약성을 타파하고 차이를 수용함으로써 포용적인 집단적 스토리를 구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동희 옮김